

유물과 더 가까이, 역사와 더 친근하게,
즐거움이 있는 곳 국립중앙박물관



백제 문화의 정수,
사비 시기의 유물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



중원 문화와 고려 금속공예의 보고,
예술과 놀이와 과학이 함께하는 어린이박물관



강원 문화의 정수,
보고 즐기고 사색하는 국립춘천박물관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연구·
전시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박물관



무령왕릉과 웅진백제를 주제로 하는
테마 박물관



대구·경북지역의 옛스런 문화와
멋스런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심 속의 박물관



2,000년 전의 마한 역사를 소개하는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열린 문화 공간



미륵사지 석탑과 사리장엄구를 주제로
고도 익산을 대표하는 유적 밀착형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02-2077-9000 | <http://museum.go.kr/>

• 월·화·목·금요일 10:00~18:00 수·토요일 10:00~21:00 일요일·공휴일 10:00~19:00
• 휴관일: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550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섹고개로 249
063-223-5651~2 | <http://jeonju.museum.go.kr/>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일요일·공휴일 10:00~19:00
- 토요 야간개장 10:00~21:00(3월~10월 매주 토요일)
- 휴관일: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3315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041-833-8562 | <http://buyeo.museum.go.kr/>

32535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041-850-6300 | <http://gongju.museum.go.kr/>

2831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043-229-6300 | <http://cheongju.museum.go.kr/>

42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053-768-6051~2 | <http://daegu.museum.go.kr/>

24325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033-260-1500 | <http://chuncheon.museum.go.kr/>

58301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061-330-7800 | <http://naju.museum.go.kr/>

- 화~금요일 10: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10:00~19:00
- 토요 야간개장 10:00~21:00(4월~10월 매주 토요일)
※ 단, 국립민주박물관은 토요 야간개장이 없습니다.
- 휴관일: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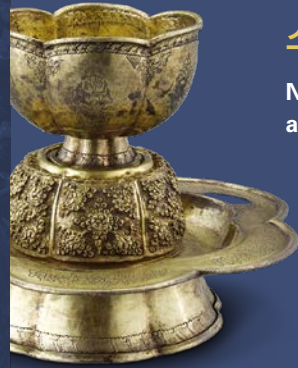
54574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063-830-0900 | <http://iksan.museum.go.kr/>

- 화~일요일 10:00~18:00
- 휴관일: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Schedule of Exhibitions in Celebration of the 1100th Anniversary of Goryeo's Foundation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Regional National Museums**



2018.
05.
–
2019.
03.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국립박물관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세운 개태사를 비롯한 익산 미륵사, 영월 창령사 터, 영주 금강사 터 등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고려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살펴보고, 부안청자·강진청자 등 고려청자의 아름다움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전의 하이라이트는 12월 개최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⁹¹⁸⁻²⁰¹⁸ 그 찬란한 도전”입니다. 고려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를 이어 과거의 전통을 융합했고,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릴만큼 예상항해는 많은 외국인이 방문했습니다. 고려청자가 당시의 신기술에 대한 고려인의 도전을 보여준다면, 정교하고 섬세한 고려불화의 아름다움과 나전칠기의 멋은 도전의 결과로 이룬 예술성의 정점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고려 미술에 담긴 우수성과 도전에 담긴 새로운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고려가 이룬 융합과 포용, 통합의 성과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특별전을 통해 더 이상 잃어버린 층세의 왕조가 아닌 고려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regional national museums are proud to present a series of special exhibitions from May 2018 to March 2019 to mark the 1100th year since the foundation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These exhibitions held in cities throughout Korea will allow visitors to explore diverse facets of Goryeo's Buddhist culture through items excavated at the sites of ancient Buddhist temples, including Gaetaesa Temple founded by King Taejo of Goryeo, Mireuksa Temple in Iksan, Changnyeongsa Temple in Yeongwol, and Geumgangsa Temple in Yeongju. They can also appreciate the beauty of Goryeo art through refined celadon pieces produced in Buan and Gangjin and other artworks from the period.

The centerpiece of the series is “Goryeo: The Glory of Korea,” scheduled to open in December this year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s the successor to Unified Silla and Balhae, Goryeo integrated the diverse cultures of its predecessors to develop an open and cosmopolitan society enjoying active exchan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name Korea itself is a derivative of Goryeo, and its Yeseong Port was bustling with foreign visitors.

If Goryeo celadon exemplifies its people’s spirited exploration of new technologies, the exquisite and refined beauty of Buddhist paintings and mother-of-pearl inlaid craftworks represents the pinnacle reached by Goryeo art through its bold pursuit of refinement. This exhibition is designed to illuminate the excellence of Goryeo art and the spirit of challenge it reflects. Goryeo embraced and integrated diverse cultures of its predecessors, and these remarkable achievements have been infused into the Korean cultural DNA. The special exhibitions on Goryeo art will allow visitors to discover the meaning of Goryeo for today rather than seeing it as a lost dynasty from a bygone era.

※ 전시 세부 일정과 내용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8.5.22.-7.22.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관

개태사開泰寺 – 태평성대 고려高麗를 열다

Gaetaesa: Royal Temple for Protecting the Goryeo Dynasty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세운 개태사開泰寺를 재조명한 전시입니다. 개태사는 태조의 진영眞影을 모신 진전眞殿 사찰이자,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부여 홍산대첩鴻山大捷이 일어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의 고려시대 쇠북인 <개태사 쇠북>과 개태사 터에서 발굴한 유물을 전시하여 왕실 사찰로서의 면모를 소개합니다.



개태사 쇠북
고려 13세기 | 지름 102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2018.6.26.-8.19.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삼별초와 동아시아

Sambyeolcho and East Asia

13세기 후반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몽골의 침략에 항전한 삼별초三別抄를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삼별초의 주 무대였던 강화 중성, 진도 용장성, 제주 향파두리성과 삼별초 패망 이후 여·원 연합군의 공격 흔적이 남아 있는 일본 다카시마 해저 유적 등 삼별초와 관련된 지역의 출토품, 삼별초의 탄생과 항전 과정을 보여 주는 유물, 고려 후기의 사회·문화상을 보여 주는 유물 등을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청동 사자 광명대 간주
고려 말~조선 초, 14~15세기
높이 16.5cm |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2018.7.20.-12.31.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빛고 짝은 고려 – 상감청자와 금속활자의 비밀

Crafted and Printed in Goryeo:
Secrets of Inlaid Celadon and Metal Type



한국인의 창의성 시리즈 중 첫 번째 전시로, 2018년에는 고려의 금속활자와 청자에 담긴 지혜와 우수성, 가치를 알리는 어린이 체험 공간을 구현합니다.

포도 동자무늬 표주박모양 주자 중 동자무늬(부분)
고려 12~13세기 | 높이 34.5cm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18.7.24.-11.11.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중원의 고려 사찰: 사람人과 바람願

Goryeo Temples in Central Korea:
People and Prayers

충청북도의 고려시대 주요 사찰과 관련된 유물을 한 자리에 모아 당시 중원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불교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고승의 비문, 각종 발원품, 법구 등을 통해 승도僧徒와 신도信徒 각자의 바람과 이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불교 의례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송선사 금동 풍탁
고려 | 높이 28.6cm |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2018.8.28.-11.25.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

창령사 터 오백나한 –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Five Hundred Arhats from the Changnyeongsa Temple Site

국립춘천박물관을 상징하는 브랜드 소장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강원 지역 나한상의 독특한 이미지를 가진 영월 창령사 터齋嶺寺址 오백나한상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백나한상에 깃든 불교 철학적 의미와 나한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보주를 든 나한
고려 말~조선 초, 14~15세기
높이 37.4cm |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2018.9.11.-12.30.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상설전시실

고려시대의 미륵사

Mireuksa Temple during the Goryeo Dynasty

1000년간(백제~조선) 불법佛法의 등을 밝혔던 백제 최대 가람 미륵사彌勒寺의 고려시대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전시에서는 고려시대 미륵사의 역할과 이곳에 거주하던 승려들의 생활상을 소개합니다. 미륵사 터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와 중국 도자기, 다양한 불구佛具 등을 중심으로 불심이 가득했던 곳, 미륵 신앙을 구현한 대표적 사찰인 미륵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청동제 보살 손
고려 10~11세기
높이 27.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18.9.22.-11.25.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고려청자의 정점頂點을 만나다
부안청자·강진청자

Acme of Goryeo Celadon:
Celadon from Buan and Gangjin

전라도 정도道道 1000년과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시대 물질문화의 정수인 청자를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최근 조사되어 주목받고 있는 진안鎭安 도통리道通里 초기 청자와, 고려청자의 대표 생산지인 전북 부안扶安과 전남 강진康津을 중심으로 자기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유물 등을 다양하게 전시합니다.



용무늬 매병
고려 13세기 | 높이 52.5cm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18.10.23.-2019.2.24.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시실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

Treasures from the Geumgangsa Temple Site
in Yeongju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영주 금강사 터金剛寺址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불교 미술품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우물터에서 나온 광명대와 향완, 금당 근처에서 출토된 청동거울과 경상鑿像, 경자鑿字 등 다양한 법구를 전시함으로써 고려시대에 번성한 금강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광명대
고려 1186년 | 33.2×14.0cm
(재)한국문화연구원 소장

2018.11.6.-2019.1.13.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충청남도의 고려

Goryeo in Chungcheongnam-do

고려시대 충청도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충청남도 주요 도시를 전략적 요충지, 행정의 중심지, 조운漕運의 중심지로 나누어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종교 문화와 물질 문화를 조명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찾아보고, 고려시대 충청남도의 가치와 계승 의미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호주湖州’ 글자가 있는 거울
고려 12세기 | 지름 18.8cm |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2018.12.4.-2019.3.3.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대고려918-2018
그 찬란한 도전

Goryeo: The Glory of Korea

고려(918~1392) 건국 1100주년을 맞이하여, 개방적이며 독창적인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전시를 개최합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수용하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한국 문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찬란한 고려 문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잔과 전발침
고려 12세기 | 높이 12.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1899호



전 인종 장릉 출토품
고려 12세기 전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